

# 미국과의 첫 만남

## 1951년 미국 보병학교 유학



전쟁중인 1951년 9월 제1차 국군장교단 도미 유학생에 뽑혀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의 보병학교에 입학해 6개월간 선진 군사훈련을 받았다. 제6 중대 막사 앞에서 장교복 정장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산군 킬러’ 밴플리트 사령관 “전쟁 길게 간다, 한국 장교 키워야”

1951년 4월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맥아더 해임 후 리지웨이(이종무)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하자 미 제8군사령관에 임명됐다.

“이 전쟁은 상당히 길게 간다. 우수한 한국 장교를 대대장 요원으로 양성해야겠다”며 후보를 뽑았다. 거기서 선발된 인원이 1차 도미장교단 250명(보병장교 150명, 포병장교 100명)이었다. 나도 조지아주 포트 베닝(Fort Benning) 보병학교에서 훈련받는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부산항에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졌다. 전선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던 51년 9월 12일이었다. 대위였던 나는 일본 군수물자 수송선으로 쓰인 곤고마루(金岡丸)에 몸을 실었다. 이튿날 도착한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미군 해군수송함 제너럴 존 포프(General John Pope)호였다. 1만6000t짜리 수송함의 엄청난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침대는 깨끗했고 밥도 잘 나왔다. 식사는 양식이었는데 기름진 음식이 내 입맛엔 잘 맞았다. 바다 위에서 열하루를 보낸 9월 24일 “곧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제너럴 존 포프호가 빨간색 금문교(金門橋) 아래로 지나고 있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조지아주 포트베닝에 있는 미 육군 보병학교였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4000km 여행을 위해 배에서 내려 특별열차 풀만에 올라탔다. 창 밖으로 마주치는 도로는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자동차들이 쉼 없이 왕래하고 있었다.

수만 리 이국 땅에서 매일 격렬한 전투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어디까지나 대륙적이고 여유 있는 평화경주(和境)이었다. 미국이 이래서 강한 나라로구나. 그 힘을 실감했다. 나흘간 열차 여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첫날 저녁 중대본부 표판 위에 태극기와 함께 내걸린 문구를 보고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춰야 했다.

“이 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출입한다”고 영어로 써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수한 장교가 돼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이 문을 출입하겠노라 다짐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모범을 보이려 부단히 노력했다. 훈련엔 최선을 다해 임했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 노력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었다. 독도법 같은 일반학과 전술학·화기학을 두루 배웠다. 전투기와 전차가 동원된 실전훈련도 벌였다. 포트 베닝은 요새 같은 작은 군사도시였다.

미군 장병이나 시민들은 6·25에 참전한 미국이 승리할 것이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건 미국 국민으로서 의무”라는 생각이 투철했다. 평화와 자유는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의 번영된 조국을 건설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52년 4월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배길, 귀향의 안도감과 전쟁이 한창인 조국의 미래에 대한 상념이 교차했다.

〈중앙일보 증언록 ‘소이부담’(19) JP의 전쟁과 사랑에서〉



1952.3.21 미국보병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항을 떠나는 보병, 포병 장교 250명이 승선을 위해 도열하고 있다.